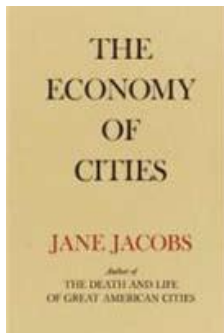


도시농업관련 책 소개

김목한 부연구위원 hookman@si.re.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도시이론가 제인 제이콥스는 **Economy of Cities(1969)**에서 농업이 도시에 선행했다는 통념을 뒤집습니다. 수렵이 경제의 기본이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기원이 되었

던 고밀도의 주거형태가 생겨났고, 여기서 농업과 축산이라는 당시에는 가장 혁신적이었던 산업이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죠. 제이콥스 본인의 말을 빌자면 농촌의 일로서 농업이란 결국 ‘이식된 도시의 일(urban work transplanted)’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주장이 옳다면 도시농업이란 원래 도시의 일이었다는 일을 되찾는 길이라 해도 큰 과장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 새로 돌아온 도시농업은 하지만 산업으로만은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가 수렵 사회의 고밀도 주거지가 아니듯이, 도시농업 또한 당시의 첨단산업이었던 농업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이제 도시가 농업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농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고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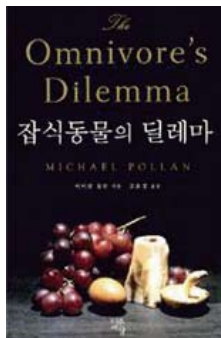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에서의 공동체의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제가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인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2013)에는 도시에서의 텃밭 가꾸기가 어떻게 도시를 푸르게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촘촘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보다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담은 **(지금이야 말로) 도시농(2012)**에서는 아예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역설하는 내용이 한 장을 꼬박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한 식량고를 도시에서의 농산물 자급생산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었던 쿠바의 사정을 담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2004)**은 지금 보면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근본이 어찌보면 도시에서 생산된 농산품의 도시에서의 소비라는 데 있다는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재조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농업의 기저에는 지역의 식량을 지역에서 조달한다는 로컬푸드(Local Food)의 전제가 깔려있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2009)와 같이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잡식동물의 딜레마(2008)**에서 저자 마이클 폴란이 입담종게 풀어낸

현대의 음식사슬에 대한 고찰이 훨씬 마음에 와닿 더군요. 풀란은 산업적 가공식품, 산업 유기농, 지역 중심의 초 유기농, 사냥/채집의 4가지 음식사슬을 체험하고서는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시골을 먹여 살리는 음식사슬과는 다른 음식사슬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좋고 편하고 유익하기만 한 음식사슬 따위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와 같이 다양한 음식사슬이 공존할 수 있는 음식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최근에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따라가기가 살짝 어려울 지경이죠. 이럴 때는 **도시농업(2012)**이나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 뿌리기(2012)**같은

개론서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대한 유용한 사례집인 **도시농업-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2011)**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총론에 이어 지역별 사례, 그리고 학교텃밭, 밭코니 텃밭, 옥상 텃밭 등의 분야별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깐요. 마지막으로 **밥상 혁명(2009)**은 이제는 다소 오래된 느낌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에 대한 이슈를 연결해 개관하기에는 여전히 의미 있는, 작지만 알찬 책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도시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없겠죠. 우리가 아는 도시만큼의 도시농업이 있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수많은 답들이 궁리되고 시험되는 와중에 있는 것이죠. 도시농업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 서울에서의 도시농업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소개해 드린 책들을 우선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래에 이 글에서 소개한 책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글에서 소개한 책들

- Jane Jacobs. 1970. The Economy of Cities. Vintage Books.
- 강양구, 강이현. 2009. 밥상 혁명 : 세상을 바꾸는 21세기 생존 프로젝트. 살림터. / 서울도서관 5227 2012-2
- 김중덕. 2009.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 이후.
- 데이비드 트레시. 2012. 도시농업 : 도시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미세움. / 서울도서관 5221 2012-2
- 마이클 풀란. 2008. 잡식동물의 딜레마. 다른세상.
- 요시다 타로.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2011. 도시농업 :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들녘. / 서울도서관 52226 211-1
- 제프리 후우. 2013.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도시 :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 환경과조경. / 서울도서관 520 2013-2
- 탐진 핑커턴, 롭 홉킨스. 2012.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 뿌리기 : 지역, 상생과 공생, 순환을 위한 행동 가이드. 따비. / 서울도서관 5227 2012-5
- 하치스카 히로코, 사쿠라이 이사무. 2012. (지금이야 말로) 도시農 : 도시농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다. 농민신문사. / 서울도서관 522 2012-4